

中이 독점하던 산업 첨가제 ‘탈크’ 소재中企 코츠가 20개국에 수출

이달의 무역인 김용수 코츠 대표

인도·파키스탄 원석광산에 투자 중국 의존 벗어난 공급망 확보 “비금속 광물 세계 1위 될 것”



제141회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상을 받은 김용수 코츠 대표. 한국무역협회 제공

탈크는 천연광물인 활석(마그네슘을 포함한 규산염 광물)을 곱게 갈아 만든 가루다. 전기절연성 및 내열성, 화학 안정성이 우수하고 다른 물질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어 도로, 종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첨가제로 쓰이고 있다.

충남 서천의 비금속광물 분쇄물 업체 코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탈크 제품을 국산화한 국내 대표 탈크 생산업체다. 이 회사는 탈크 국산화 산업 소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제신문사가 선정한 '제141회 한국을 빛낸 무역인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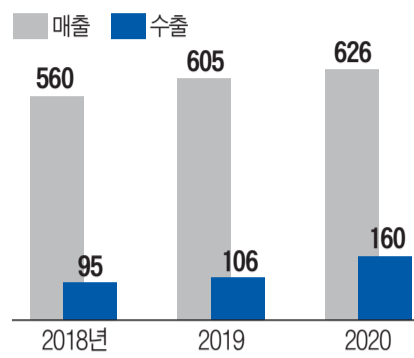
◆국내 최초 탈크 원소통 공정 구축 아시아 탈크 시장은 천연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중국 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막강한 편이다. 국내 산업계도 2000년대 중반까지는 중국 탈크 업체가 정해 놓은 시장 가격을 따르는 처지였다. 김용수 코츠 대표가 탈크 국산화에 나선 배경이다. 그는 중국산보다 가격 경쟁력·품질이 뛰어난 탈크 제품 생산을 목표로 1999년 회사를 설립했다.

사업 초기에는 중국산 탈크를 수입해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내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2006년부터는 탈크 반제품을 분쇄하는 ‘초미분

분쇄공정’을 도입해 중국산 탈크 반제품을 국내의 업체가 요구하는 규격으로 가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중국 업체에 맞서 고객 지향적 생산을 통해 수요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국내외 탈크 시장에서 승부를 보기도 했다.

해의 광물 공급 시장 개발에도 공을 들였다. 국내산 탈크 원석은 거의 고갈됐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천연광물 매장량은 풍부하지만 채굴 및 유통 기반이 부족한 파키스탄과 인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안정적인 원석 공급망을 구축했다. 이어 2011년 탈크 원석을 분쇄하는 ‘미분 파쇄공정’까지 추가로 도입하면서 원석 수급부터 파쇄, 분쇄, 품질 관리, 출

성장하는 코츠 실적(단위: 억원)



하 전 단계를 아우르는 원소통 공정을 완성했다.

◆“글로벌 비금속광물 1위 목표” 코츠는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전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국내 400여 개 업체에 탈크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보유한 탈크 제품 등급만 150여 개에 달하는 까닭에 국내 산업계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해 신속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글로벌 시장에선 일본(수출 비중 36%) 태국(21%) 등 20여 개국, 100여 개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한때 아시아 탈크 시장을 독점했던 중국 수출 비중은 15%로 네 번째로 크다.

이 회사의 지난해 수출 실적은 160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무렵 주관으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천만불 수출의 탑’을 받았다. 올해 수출도 전년 대비 15%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김 대표는 “전 임직원이 세계 최고의 비금속 광물회사라는 공동 목표 아래 이룬 시일 내 ‘5천만불 수출의 탑’을 목표로 생산 능력 확대, 기술 개발, 품질 향상에 정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혁신 스타트업’ DDP에 모인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푸드테크 스타트업 고퍼자는 로봇틱스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키친을 구축했다. 자체 개발한 스마트 오븐은 1인용 피자 5개를 3분 안에 굽는다. 로봇 팔은 피자를 자동으로 커팅하고 피자 종류에 알맞은 소스를 알아서 뿌린다. 2017년 8월 창업한 고퍼자는 4년 만에 120개 매장을 국내뿐 아니라 싱가포르, 중국, 홍콩, 일본, 인도 등에 열었다.



임재원 고퍼자 대표가 스마트 오븐과 로봇 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고퍼자 제공

고퍼자는 전 세계에 1만 개 매장을 열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이 목표다. 임재원 고퍼자 대표가 직접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2021’에 참여하는 이유다. 임 대표는 “세계 각국 투자자와 창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투자 유치 및 스케일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컴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세계 5대 스타트업 페스티벌 중 하나다. 2019년부터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컴업 행사는 다음달 17일부터 3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다.

컴업2021 개최에 맞춰 우수 스타트업 ‘컴업 스타즈’ 72개사를 선정했다. 컴업 스타즈는 국내외 혁신 스타트업을 선정해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컴업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올해 컴업

다음달 17일 ‘컴업’ 개막 고퍼자·웨어그라운드 등 국내외 72곳 투자 페스티벌

스타즈에는 37개국 783개 스타트업이 지원했다.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적으로 국내 56개사와 해외 16개사가 선정됐다.

서울 동대문 패션 도매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있는 스타트업 웨어그라운드도 대표적인 컴업 스타즈 중 하나다. 웨어그라운드는 의류 도매 거래에서 발생하는 주문 발주, 입고 체크, 거래·정산 내역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사업을 2019년 5월 출시했다.

관리하는 임소문을 타고 솔루션 출시 2년 만에 거래 업체 수가 1만3222개로 늘었다. 누적 주문 데이터는 2322만

건에 달한다. 이연 웨어그라운드 대표는 “한국의 패션 도매시장은 동대문에서 시작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며 “글로벌하게 셀업 솔루션을 알고 싶어 컴업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컴업 스타즈에 선정된 기업은 대형 투자사와 미팅 기회를 갖는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18개 글로벌 기업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난해 컴업 스타즈 120개사가 기업설명회(IR)를 통해 모은 투자금은 983억 원에 달했다.

대표적으로 2014년에 설립된 스트라비전은 자동차와 사람, 동물 등을 관측하는 자율주행용 인공지능(AD) 카메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지니고 있다. 작년 컴업 이후 해외 자동차 부품 제조사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등 총 47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김진원 기자

소기업·소상공인에 포장재 증개하는 ‘포장포스’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리우 “클릭 몇 번으로 전직”美 구매자와 국내 공장 연결도



요청 누적 등록수 4000건, 구매 회원 3000명 정도까지 규모가 커졌다.

포장재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국내에서 리우가 유일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이 ‘투미란’ 업체 한 곳만 있다. 김 대표는 “투미가 택배 관련 포장재만 취급하는 반면 리우는 난도가 높은 다양한 형태의 주문 제작 포장재를 모두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며 “한 번 플랫폼을 이용한 구매자의 재이용률이 50%

를 넘을 만큼 신뢰를 얻었다”고 말했다. 구매자 수요를 정확히 찾기 위해 리우는 사내에 포장연구소도 두고 있다. 이곳에선 10년 이상 업계 경험이 있는 포장연구원이 중소·소상공인에게 개발한 상품과 맞는 포장재를 추천해 주고, 포장재 제작을 위한 구조 설계·샘플 제공 등의 서비스도 하고 있다. 포장재와 관련해 설계·제작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구매 대행도 하고 있다.

리우의 다음 목표는 세계 시장이다. 다음달 포장재 소비 1위 국가인 미국에서 포장 구매자와 국내 생산 공장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내년 6월 개 중국 시장에서 국내 구매자와 중국 생산 공장을 연결하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해외 시장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올해 7억 원 정도에 예상되는 매출이 2025년까지 21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 김 대표의 전망이다. 지난 9월부터 유력 전략투자처(ES)를 상대로 30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해태제과, LG서브윌 등에서 포장재 개발 및 구매 등 업무를 한 포장산업 분야 전문가다. 김동현 기자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 IMM PE와 경영권 양도 계약

지분 27.7% ... 1조4500억 규모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IMM 프라이빗에쿼티(IMM PE)가 유동 대기업인 롯데그룹과 함께 국내 1위 가구업체 한샘을 품는다.

한샘은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조창걸 명예회장(사진)이 자신과 특수관계인 7명의 보유 지분을 IMM PE에 매각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7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매각 대상은 조 회장 지분 15.4%와 특수관계인 7명의 지분 12.3%다. 거래 금액은 1조4513억원이다. 이번 한샘 인수에는 롯데쇼핑이 전략

적 투자자로 참여해 2995억원을 출자한다. 한샘은 연내 거래를 종결할 예정이다.

IMM PE는 한샘을 주거 환경의 혁신과 감동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새롭게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IMM PE는 “다양한 제품 구매 확보, 공사 기간을 대폭 축소한 시공 서비스 출시, 신규 자재 개발 및 적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롯데그룹과는 롯데쇼핑, 롯데하이마트와의 시너지뿐만 아니라 물류, 렌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기자

한국품질만족지수

KCC 3사, 9개 부문 1위

KCC-KCC글라스-KCC실리콘이 ‘2021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건축자재 관련 9개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한국품질만족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가 제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반영해 공동으로 개발한 품질 측정 모델이다.

KCC는 △수성도료 △유성도료 △석고텍스 천장재 △그라스울 단열재 △창호 세트 등 5개 부문 1위 기업에 선정됐다. KCC글라스는 △PVC바닥재 △저방사 유리(코팅유리) △테레코레이션 필름 등 3개 부문, KCC실리콘은 △실리콘(실리카) 부문 1위 기업으로 뽑혔다. 김진원 기자

한경미디어그룹

한눈에 보는 경제·경영·재테크 트렌드

참간 26주년 기념 특집호 No. 1352 | 2021. 10. 25-31

한경 BUSINESS

SPECIAL REPORT

‘혁신 성지’ 판교밸리에서 본 미래

SPECIAL REPORT

‘뉴 스페이스’ 우주 개발 대항해 시대

SPECIAL REPORT

‘새로운 소비 권력’ MZ세대 소비 성향·선호 브랜드 조사

SPECIAL REPORT

수익성·ESG 함께 잡은 2021 ROESG 톱 50

3세 경영 닷 올린 현대중공업그룹... ‘정기선 체제’ 속도

스마트 공장으로 위기 뚫는 LS니코동제련

한경비즈니스, NAVER 모바일에서 '구독 하세요' 모바일에 더 강력한 한경비즈니스, 더 다양한 유익한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ESG REVIEW

친환경 확산의 허브로 부상한 대형마트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더 다양해진다

홍영식의 정치판

‘대장동 1타 강사’로 돌풍... ‘원희룡의 시간’ 올라

비트코인 A to Z

보수적인 연가금도 가상 자산 투자 나선다

글로벌 현상

전력난부터 부동산 침체까지, ‘빨간불’ 켜진 중국 경제

아이미 조의 100억 레슨

강력한 드라이버 샷을 위한 ‘체중 이동’

번호로 읽는 부동산

토지 위에 식재된 나무, 과연 누구 소유일까

magazine.hankyung.com

Magazine 한경